

「마음 열고 | 찬양과 나눔」

-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(찬송 94장, 구 102장)
-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의 근황을 나눠봅시다.

‘죽 한 그릇’과 ‘하나님 나라의 언약’을 감히 비교할 수 없습니다. 죽 한 그릇은 잠시 허기를 채울 수 있지만,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생명을 안겨 주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‘들 사람’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죽 한 끼에 동생에게 넘김으로, 언약의 법적 상속자로서의 책임과 권리를 저버렸습니다. 아무리 좋은 기회 일지라도 내가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, 언제든 타인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.

「마음 다해 | 말씀과 나눔」**1. 리브가의 복중에서부터 태아들이 다투기 시작합니다(19-26절).**

- 1) 복중에서 싸우는 태아들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은 무엇입니까?(22-23절)
- 2) 야곱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무엇입니까?(25-26절)

나눔 1 태어나면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은 야곱은 하나님이 이루시길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쟁취하려는 사람이 되었습니다.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시는데도 내가 믿지 못해서 억지로 붙들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?

2. 에서에서 한 그릇 죽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양도합니다(27-34절).

- 1) 이삭과 리브가가 자녀들을 대한 태도는 무엇입니까? (27-28절)
- 2) 에서가 들에서 돌아오는 때에 맞춰 야곱이 죽을 쏜 이유는 무엇입니까?(29-31절)

3) 에서가 동생에게 장자의 권한을 쉽게 넘긴 이유는 무엇입니까?(32-34절)

나눔 2 부모의 심각한 편애와 형제의 갈등에도 불구하고,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어 가셨습니다. 우리 가정의 부족함이나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을 신뢰합니까? 최근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면 나눠 봅시다.

나눔 3 에서는 언약의 계승자가 되는 것보다 죽 한 그릇을 선호했고, 언약에 대한 책임을 지기보다 배부름을 택했습니다. 언약의 상속자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과 영광을 저버리게 만드는 나의 '허기', 나의 '죽 한 그릇'은 무엇입니까?

「 마음 모아 | 함께 기도 」

삶 _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나 열정이 앞서지 않게 하소서.

공동체 _ 순간의 욕구나 충동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포기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게 하소서.

*본 소그룹 나눔지의 내용은 매일 성경의 그룹 큐티 나눔에 수록되어 있습니다.

찬송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

1.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
2.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
3.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

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
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
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

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수밖에는 없네